영암군, 삼호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

옛 복지회관 전 세대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76억6천만원 투입 2023년까지 3년간 추진

영암군은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1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호!호!호! 삼호아우름플랫폼'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영암군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위치한 옛 삼호읍 복지회관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76억 6천만원(국비 44억, 지방비 32.6억)을 들여 2023년까지 3년간 추진한다.

이로써 영암군은 지난해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삼호읍 옛 복지회관은 1997년에 건축된 이후 보건지소로 활용되었다가 최근에는 영암군 드림스타트, 예비군 중대본부, 사회단체 연합 사무실 등으로 이용되던 곳이다.

'호!호!호! 삼호아우름플랫폼'은 '서로(互) 돌보는(護) 좋은(好) 삶터'라는 의미를 '삼호'라는 지명에 담아 세대 간에 서로를 돌보며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삼호아우름플랫폼에는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아우름 돌봄센터가 조성된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돌봄 수요가 대폭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청소년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공간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아지트 공간이 조성된다.

또한 아우름 공유부엌이 조성돼 청소년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요리교실이 진행되며, 취약계층에 식사를 제공하는 마을밥상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오래전부터 거주했던 주민과 새롭게 이주한 주민, 외국인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아우름 스튜디오도 마련된다. 영상제작 교육을 진행하고 마을방송을 제작해 유익한 생활 정보 등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삼호읍은 대불산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자국어 자막방송을 통해 이들이 지역민과 잘 어울려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을 즐길 수 있는 아우름 체육센터와 다양한 교육과 문화교실, 공방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아우름 홀이 조성되고, 주민들이 책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편히 쉴 수 있는 아우름 카페가 들어선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산업지도 재편해 지역경제 백년대계 마련

신재생에너지·수산식품·관광 등 3대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

목포시가 산업지도 개편으로 지역경제의 백년대계를 마련해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산식품산업, 관광산업 등 3대 미래전략산업으로 대들보를 세우고, 전통산업인 조선업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자영업은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목포 경제에서 펼쳐지고 있는 흐름이다.

목포는 1897년 개항 이후 근대문물이 유입되는 관문으로 성장했다. 3대항 6대도시로까지 일컬어질 정도로 근대에 목포의 존재감은 컸다. 이후 목포는 산업화를 선도한 향토기업들이 지역경제를 지탱하면서 전남 제1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갔다.

그러다 대불산단이 조성되면서 조선업이 지역경제를 이끌어나갔다. 여기에 수산업과 자영업 등이 목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다.

하지만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면서 목포경제는 위축됐다. 향토기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터전을 옮겼고, 조선업은 활황과 불황을 오가는 산업 특성상 안정감이 부족했다.

수산업은 원물을 위판하고 유통하는 데에서 머무르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자영업은 조선업 경기와 연동해 요동쳤다. 이제 목포 경제는 생존을 위한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민선7기 목포시는 이 지점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미래 먹거리 마련해 주력해왔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강점을 산업화하고,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가는 데에 목포의 살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바다, 섬, 근대역사문화 등 강점을 백년대계의 자원으로 삼는 한편 정부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까지 담보하는 전략에 집중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산식품산업, 관광산업 등 3대 미래전략산업은 이 같은 접근을 통해 모두 1천억원대의 정부 정책과 맞물려 육성이 추진되고 있다.

김 시장은 "목포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으로 전진하며 산업구조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관광객이 즐겨 찾는 도시로 발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제8대 함평군 공무원 노동조합 출범

'소통하는 강한 노조' 슬로건으로 본격적 활동 돌입

제8대 함평군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정안식)이 지난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소통하는 강한 노조'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8대 함평군 공무원 노조의 정안식 노조위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92%라는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김형모 함평군의회 의장, 석현정 공노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조합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됐다.

정안식 위원장은 "소통하는 강한 노조를 위해 조합원 후생복지 증진, 공정한 인사 감시 역할,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신안군, '치유의숲 조성' 사업비 50억 확보 특색있는 산림서비스 제공 기대

신안군이 전라남도 산림생태관광분야 핵심사업인 치유의숲 조성사업 50억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비금도 치유의숲 조성사업'으로 지역별 특색이 있는 산림치유 기반을 확충하고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 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지는 천사대교와 추포대교 개통으로 뱃길 여행이 더 편리해져 외부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비금도'이다. 편백나무·천일염 등 생태자연을 활용한 매력적인 비금도 치유의숲을 조성하여 산림생태 휴양문화와 관광인프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금도 치유의숲은 편백숲길과 해당화언덕길을 거닐며 푸른 바다와 녹색의 숲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산책이 가능한 치유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신안=이덕주 기자

영광군, 미세먼지 대응하는 적극행정 눈길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장치 촉매제 '요소수' 무상 공급 실시

영광군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방안으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요소수'를 무상으로 공급한다고밝혔다.

이번 무상공급 대상자는 Tier4 기준 엔진을 장착한 농기계 중 요소수를 첨가하는 농용트랙터, 콤바인을 보유한 관내농업인이며 총 공급량은 400통(1.4톤)으로 7월부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무상공급량은 한

농가당 최대 10리터(3.5리터×3통)로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북부·남부분소)에서 공급을 진행한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육성

무안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 작물로 오크라, 공심채 등 아열대 작물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의 증가로 아열대 채소와 과일의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온난화로 인해 아열대 작물 재배면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군에서는 농가들에게 1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현장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등 아열대작물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제면에서 아열대채소를 재배하는 김종근 씨는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육성시범사업을 통해 비닐하우스 5동(2,369㎡)을 지원받아 오크라, 공심채, 롱빈, 여주, 차요테, 태국가지 등

오크라

다양한 아열대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무안에서 재배된 아열대 채소는 관내 마트와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에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 외국인들에게는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고향 음식으로써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